

朝鮮 初期 山水畫의 空間: 政治的 理想의 視覺化

박은순*

- I. 머리말
- II. 四時八景圖의 空間: 易과 不易
- III. 官僚契會圖의 空間: 眺望과 風水
- IV. 맺음말

I. 머리말

조선왕조는 儒學的 思想을 토대로 건국되었고, 조선 초에는 정치 뿐 아니라 사회, 예술 전반에서 유학적인 이념을 적용한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는데 거국적인 관심을 기울였다. 회화 분야에서도 유학적인 경향이 반영되기 시작하였다. 우선 궁중회화에서 功利性과 效用性을 중시하는 특징이 뚜렷하게 정립되었다. 민간에서 제작, 향유된 회화에서도 그러한 경향이 차차로 정착되었는데, 이는 조선 초 회화의 주요한 주문자이자 감상층이 유학자 관료 및 선비들이었기 때문이다.

조선 초기 회화에 유학적 성향이 투영된 것은 공리적인 성격의 인물화와 선비의 心象을 담은 대나무 그림 및 故事畫 등에서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산수화 분야에서 그러한 특징을 읽어 보는 것은 간단치 않다. 현존하는 작품과 전해지는 문헌기록들을 통해서 볼 때, 조선 초기(약1392-약1550)에는 관념적인 주제를 다룬 관념산수화와 실경을 재현한 실경산수화가 공존하면서 산수화단의 큰 흐름을 형성하였다.¹ 조선 초의 관념산수화 중에서는 四時圖와 四時八景圖, 瀟湘八景圖 류의 작품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비

* 덕성여자대학교 교수

* 본 논문은 2015년 6월27일 한국미술사학회와 서양미술사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2015 미술사학대회 공동세션의 주제인 “미술가의 공간”에 맞추어 발표한 원고를 토대로 작성되었음.

** 본 논문은 2015년 덕성여자대학교 교내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음.

¹ 조선시대 회화 구분과 조선 초기 산수화의 일반적인 경향에 대해서는 安輝濬, 『韓國繪畫史』(一志社, 1980), pp. 124-129 참조.

교적 잘 알려져 있다.² 조선 초의 실경산수화로서는 관료들의 계회를 기록한 官僚契會圖들이 적지 않게 현존하고 있고, 이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통해서 계회도의 성격과 기능, 화풍 상의 특징이 논의되어 왔다.³ 그러나 이 시기의 관념산수화와 실경산수화를 통관하는 연구는 지체된 편이다. 필자는 위에서 거론한 관념산수화와 실경산수화 중 유학적 사상과 예술관을 토대로 형성된 작품들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즉, 인물화와 사군자화 뿐 아니라 산수화 중에도 유학적 우의성과 효용성이 작용하였고, 그러한 배경에서 특정한 주제와 양식의 산수화가 제작, 유통되었던 것이다. 조선 초 산수화에 반영된 유학적 이념과 성격은 이 시기 산수화의 주요한 주문자이자 감상자인 왕실과 관료, 선비계층이 유학적 사상과 문화를 주도해간 것과 관련이 있다.

본고에서는 조선 초 왕실과 사대부 관료들이 지녔던 유학적 이념과 政治的理想을 시각적으로 表象한 산수화를 중심으로 이 작품들의 주제의식과 상징적 의미, 정치적 우의성에 대해서 조명해 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서 관념산수화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四時八景圖를 고찰하고, 실경산수화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관료계회도 중 眺望과 風水의 개념을 부각시킨 작품들을 중심으로 고찰하려고 한다.

Ⅱ. 四時八景圖의 공간: 易과 不易

조선 초의 대표적 畫員인 安堅(15세기 활동)의 작품으로 전칭되고 있는 《사시팔경

2 사시팔경도에 대한 논의는 安輝濬, 「傳 安堅筆 四時八景圖」, 『考古美術』 136·137(1978. 3), pp. 72-78; 소상팔경도에 대한 대표적인 국내 연구로는 안휘준, 「國立中央博物館 所藏 瀟湘八景圖」, 『美術史學研究』 138(1978), pp. 136-142; 안휘준, 「瀟湘八景圖의 起源과 東傳」, 『韓國繪畫의 傳統』(文藝出版社, 1988); 박해훈, 「조선시대 소상팔경도 연구」,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2); 한정희, 「명청대와 강호시대의 소상팔경도」, 『은지논총』 34(2013), pp. 73-114; 여기현, 「소상팔경의 시적 형상화 방식」, 『반교어문연구』 15(2003); 전경원, 「소상팔경-동아시아의 시와 그림」(건국대학교출판부, 2007); 衣若芬, 「소상팔경: 동아시아 공통 모티브의 문화현상」, 『한국문학과 예술』 13(2014), pp. 5-25; 송희경, 「한·중 소상팔경도의 조형성과 표상 비교: 소상야우를 중심으로」, 『한국문학과 예술』 13(2014), pp. 109-139 등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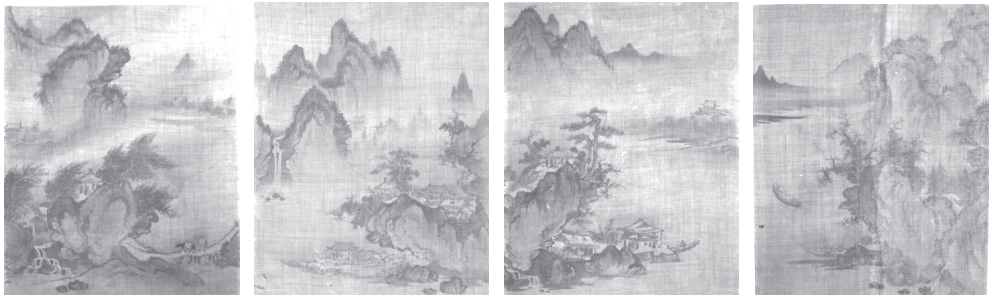
3 조선시대 계회도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안휘준, 「16世紀 契會圖를 통해본 朝鮮王朝時代 繪畫樣式의 變遷」, 『美術資料』 18(1975), pp. 36-42; 안휘준, 「한국의 문인계회와 계회도」, 위의 책(1988), pp. 368-389; 朴銀順, 「16世紀 讀書堂契會圖 研究: 風水의 實景山水畫에 대하여」, 『美術史學研究』 212(1996), pp. 45-76; 박은순, 「朝鮮初期 江邊契會와 실경산수화: 典型化의 한 양상」, 『美術史學研究』 221·222(1999), pp. 43-77; 박은순, 「朝鮮初期 漢城의 繪畫-新都形勝 升平風流」, 『講座美術史』 19(2002), pp. 97-130; 박은순, 「조선시대의 누정문화와 실경산수화」, 『美術史學研究』 250·251(2006), pp. 149-183; 윤진영, 「朝鮮時代 契會圖 研究」,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3) 등 참조.

도》는 봄·여름·가을·겨울의 사 계절을 각 계절 당 두 장면씩으로 나누어 재현한 산수도이다(도 1, 도 1-1-8). 이 작품은 조선 초에 유행한 산수화의 주제이자 화풍을 대변하는 작품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 작품을 중심으로 조선 초에 자주 제작, 감상되었던 사시팔경도의 주제의식과 상징적 의미, 정치적 우의성에 대해 구명하고자 한다.

전 안견필 《사시팔경도》의 각 장면은 近景, 中景, 遠景의 삼단으로 구성되었다(도 1). 대부분의 장면에서 오른쪽 또는 왼쪽에 언덕, 나무, 정자, 마을, 遠山 등의 주요한景物들이 치우쳐 나타나고, 그 옆으로는 시원한 강줄기가 펼쳐져 있다(도 2-1, 도 2-2, 도



도 1 傳 安堅, 《四時八景圖》화첩, 15세기 후반, 건본담채, 각 35.8×28.5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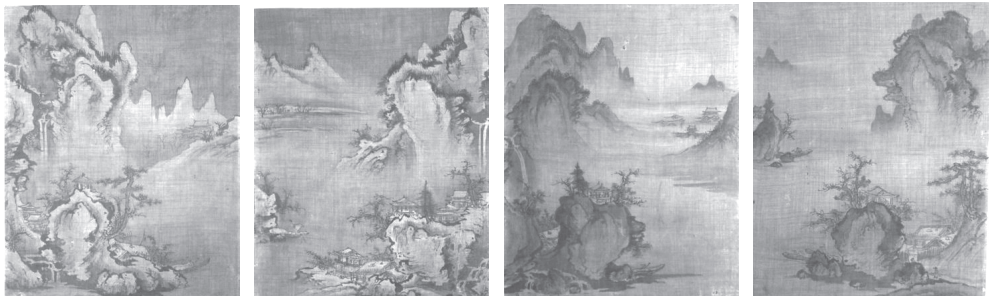


도 1-4 傳 安堅, 〈晩夏〉
《四時八景圖》
화첩 中

도 1-3 傳 安堅, 〈初夏〉
《四時八景圖》
화첩 中

도 1-2 傳 安堅, 〈晩春〉
《四時八景圖》
화첩 中

도 1-1 傳 安堅, 〈早春〉
《四時八景圖》
화첩 中



도 1-8 傳 安堅, 〈晩冬〉
《四時八景圖》
화첩 中

도 1-7 傳 安堅, 〈初冬〉
《四時八景圖》
화첩 中

도 1-6 傳 安堅, 〈晩秋〉
《四時八景圖》
화첩 中

도 1-5 傳 安堅, 〈初秋〉
《四時八景圖》
화첩 中



도 2-2 傳安堅, 〈晩春〉《四時八景圖》화첩 中



도 2-1 傳安堅, 〈早春〉《四時八景圖》화첩 中



도 2-4 傳安堅, 〈晩夏〉《四時八景圖》화첩 中



도 2-3 傳安堅, 〈初夏〉《四時八景圖》화첩 中



도 3 傅安堅, 〈初秋〉《四時八景圖》
화점 中 부분

2-3, 도 2-4). 이러한 구도에 대해서 안휘준은 편파적인 대칭구도로 각각의 계절이 좌우 대칭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설명하였다.⁴ 각 장면마다 근경에는 대각선 방향으로 솟구쳐 오른 언덕이 나타나고, 언덕 위에는 계절에 따라 소나무와 활엽수 등 여러 종류의 나무들이 서 있다. 나무 아래로는 정자나 누각이 있고, 언덕 아래로는 배 한 두 척이 매어져 있는 나루터가, 나무 옆으로는 주막이나 오두막 등이 재현되었다. 중경은 장면마다 다소 간의 차이가 있지만 우뚝 솟은 절벽이나 나지막한 수풀에 쌓인 모습이

며 그 중에 웅장한 전각들이 다섯 장면에 나타나는데, 이 전각들은 사찰이거나 山市임을 짐작할 수 있다. 대체적으로 근, 중경에 비해 소략하게 표현되었지만, 늦봄과 가을 장면에서는 크고 뚜렷한 모습이다. 장면마다 누정이나 배 등에 사람들이 등장하며 인물의 복식은 朝鮮式으로 보인다. 건물 또한 오두막, 기와집, 초가정자 등 조선적인 모습으로 표현되어 관념적이면서도 마치 현실 속의 경물을 그린 듯한 분위기를 지닌 작품이다(도 3).

중요한 사실은 구성의 원칙과 소재들이 각 장면마다 규칙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동시에 계절에 따라 약간씩 변화된 모습으로 재현되어 사 계절의 변화를 미묘하면서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한 특징을 통해서 이 장면들이 사시의 변화감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각 장면의 변화를 담아낸 규칙적인 요소들을 주목해 보면, 가장 주요한 소재들이 반복적으로 존재하거나, 또는 각 요소들이 계절에 따라 변화한다는 그 원칙 자체는 불변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이 작품에는 변화하는 可變性과 변화가 없는 恒常性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 작품을 제작한 화가나 이 작품을 주문, 감상한 사람들은 이 작품을 통해서 무엇을 표현하고, 읽고자 한 것일까.

이 작품에 재현된 공간은 山水自然을 대변하는 관념적인 공간이다. 화면에는 특정지역의 실재하는 경물이 아니라 자연을 대표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경물이 전형화된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다. 유학적인 사상을 지녔던 조선 초기의 사대부들은 산수자연을 우주적 조화의 공간으로 인식하였고, 산수자연은 곧 우주만물의 근원적 조화가 표현된 대상으로

⁴ 안휘준, 앞의 논문(1978, 3) 참조.

여겼다.⁵ 나아가 그들은 산수자연을 담아낸 산수화를 통해서 유학적 宇宙觀과 自然觀을 우의하고자 하였다. 조선 초기 사시도와 사시팔경도는 그러한 사상과 예술관을 시각적으로 표상한 작품이다. 이러한 산수도에 나타난 공간은 뉴턴 물리학의 공간처럼 절대적이고 지속적이며 텅빈 공간이 아니며, 칸트의 공간개념처럼 순수하게 지각되는 직감적인 형태도 아니다. 이 글에서 거론하는 산수화의 공간은 라이프니츠가 주장하였듯이 시간과 같이 상대적이며, 시간이 연속성의 질서인 것처럼 동시에 공존하는 사물들의 질서를 의미한다. 물상이 없는 공간은 없으며, 공간 그 자체가 절대적인 실체는 아닌 것이다.⁶

사시도와 《사시팔경도》에 나타난 경물과 사람들, 즉 萬物은 하늘과 땅 사이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도 1). 또한 각 요소들은 사시의 변화에 따라 형태와 종류, 활동이 변화되고 있다.⁷ 즉 이 작품에서는 天과 地 사이를 하나의 공간으로 설정하고, 그 공간 속에 다양한 사물을 포치하였으며, 그 공간을 갈마드는 사시라는 시간적 요소를 제시함으로써 가시적인 세계를 만들어 내었다. 이러한 방식은 동아시아의 전통적 우주론에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요컨대 천지라는 공간이 먼저이고, 거기에 사시라는 시간적 요소가 들어가면서 시공간 복합체가 만들어 진 것이며,⁸ 이 작품에 표현된 공간은 춘하추동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가지는 동시에 일 년 단위로 다시 순환하는 항상성을 띄고 있다.⁹

사시란 한국에서는 언제나 경험하고 직면하는 자연의 특징적인 현상 중 하나이다. 사시는 본래 일 년(春夏秋冬)이나 한 달(朔弦望晦), 그리고 하루(旦晝暮夜)라는, 시간단위를 4분하여 나눈 네 가지 時相의 총칭으로 사용된 개념이다. 조선 초 이후 회화 분야에서 유행한 사시도나 한문학에서 유행한 四時歌는 대부분 네 가지 시상 가운데 춘하추동의 일 년 사시를 주 대상으로 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조선 초의 사대부들은 “하늘이 陰陽五行으로써 만물을 化生하고”,¹⁰ “오행의 기가 퍼져서 사시가 운행되니 만물은 그것으로 생을 이룬다.”고 여겼다.¹¹ 조선 초의 관학자인 卞季良(1369-1430)은 “사시의 기가 천지에 가득 차 있으니 한 사물이라도 예외가 있겠는가. 사시의 운동이 고금을 관철하니 한 시각이라도 멈춤

5 박연호, 「장르론적 측면에서 본 17세기 강호가사의 추이」, 신영명, 우응순 외, 『조선중기 시가와 자연』(태학사, 2002), p. 360.

6 Mark Edward Lewis, *The Construction of Space in Early China* (New Yo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2006), p. 1.

7 “變은 化가 점차적으로 진전되는 것이고, 化는 변의 完成이다”, 成百曉 譯註, 『周易傳義』上, 권1 乾卦(전통문화연구회, 2007), p. 156.

8 김용철, 「박인로의 강호가사의 강호구성화 화자」, 신영명, 우응순 외, 위의 책, p. 102.

9 위의 글, p. 107.

10 『중용장구』 제1장, 김홍경, 『조선초기 관학파의 유학사상』(한길사, 1996), p. 81에서 재인용.

11 김홍경, 앞의 책, pp. 80-18.

이 있겠는가.”라고 하며 사시의 의의를 지적하였다.¹² 이같은 사시에 대한 관심은 자연순응적인 四時觀을 토대로 한 것으로 규칙적인 사시순환의 질서에서 인간의 모범적인 삶의 원리를 찾고자 한 오랜 사상에서 유래하였다.¹³

조선 초부터 주요한 경전으로 존중된 『周易』에서는 天地와 萬物, 사시와 元亨利貞의 四德, 仁義禮智의 四端에 대한 논의가 일체화된 개념으로 제시되었다. “天地가 있는 뒤에 만물이 생겨나니, 천지의 사이에 꼭 차 있는 것이 만물이다.”라 하였고,¹⁴ 朱子는 『주역』에 대한 주석을 쓰면서 천지의 德을 대변하는 元亨利貞의 개념이 계절로 나타나면 곧 四時가 되고, 사람에게 나타나면 仁義禮智의 四端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¹⁵ 또한 聖人이란 四時循環의 원리를 통달하고 이를 바탕으로 훌륭한 덕성을 구비하여 천하를 교화시키는 인물이라 하였고, 君子는 사덕을 행하는 자라 하였다.¹⁶ 『주역』에서는 “해와 달이 하늘을 얻어 오래도록 비출 수 있고, 사시가 변화하여 오래도록 생성할 수 있고, 성인이 그 道에 오래 있으면 천하가 化成한다.”고 하였고, 공자는 이러한 개념을 “성인이 天位를 얻고 天道를 행해서 태평성대를 이룬다.”고 해석하였다.¹⁷

조선 초에 사시의 규칙적인 순환은 곧 변치 않는 법칙을 의미하였으며,¹⁸ 이러한 개념을 토대로 하여 다른 한편으로는 왕권의 절대성과 규범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¹⁹ 『朝鮮王朝實錄』에 실린 조선 초의 기록 중에는 사시의 규칙성을 본받을 것을 강조하고, 그러한 법칙을 정치와 인사의 준칙으로 수용한 것을 보여주는 기록들이 적지 않다.²⁰

12 김홍경, 앞의 책, p. 104.

13 鄭道傳, 『河相國春亭序』, 『三峯集』권3, 李炳赫, 『어말선초 한문학의 재조명』(태학사, 2003), pp. 74-75 재인용.

14 “序卦曰 有天地然後 萬物生焉 盈天地間者 有萬物”, 成百曉 譯註, 위의 책, 권2 屯卦, p. 214.

15 주역의 괘에 대한 해석 가운데 본의에 해당하는 부분은 주자가 쓴 것인데, 乾卦에 대한 해석 중 주자가 이처럼 설명한 것이다. 成百曉 譯註, 앞의 책, 권1 乾卦 本義, pp. 158, 163 참조.

16 “君子行此四德者”, 위의 책, 권1 건괘, p. 165.

17 成百曉 譯註, 위의 책, 권1 건괘, p. 158.

18 사시 또는 사계는 주야와 더불어 규칙적인 순환을 통해 영원히 변치 않는 질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16세기 강호시가를 구성하는 하나의 중요한 축으로 작용하였다. 박연호, 앞의 글, p. 360.

19 천도와 왕권을 동일시하는 개념은 주역의 기본개념 중 하나이다. “天爲萬物之祖 王爲萬邦之宗 乾道首出庶物 而萬彙亨 君道存臨天位 而四海從 王者體天之道 則萬國咸寧也”, 成百曉 譯註, 위의 책, 권1, 건괘 傳, p. 157; Haruo Shirane, *Japan and the Culture of Four Seasons: Nature, Literature, and the Art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2), pp. 54-55, 207-208 참조.

20 『조선왕조실록』 중 조선 초에 사시를 규범, 준칙의 상징적 기준으로 삼아 인용하는 일이 이어졌다. 『세종실록』 2권, 즉위년(1418) 12월 5일(경진) 2번째 기사 이조에서 천지(天地)·사시(四時)의 관직의 차서를 바로 잡기를 청하다; 『세종실록』 24권, 6년(1424) 4월 25일(경오) 3번째 기사 조원의 처벌을 청한 우사간 이반·사헌부 장령 정연 등의 상소문; 『세종실록』 35권, 9년(1427) 2월 14일(임신) 4번째 기사 첨총제 전시귀와 연안 부사 정원서의 파출을 사헌부에서 상소했으나 윤택하지 않다 등을 비롯하여 이후 지속적으로 인용되었다.

조선 초의 유학자들에게 우주의 질서와 사시의 변화, 성인에 의한 도의 실현, 곧 현실 속에서 왕도정치의 실현은 동질적인 개념으로 인식되었다.

그렇다면 사시를 주제로 삼은 관념산수화는 언제부터 등장한 것일까. 한국의 경우 현존하는 자료를 토대로 본다면 가장 이른 기록은 고려시대 말부터 등장하고 있다. 李穡(1328-1396)이 지은 「奉謝廣平李侍中所藏山水十二疊屏風」이란 시를 통해서 사시가 江亭, 松月 등 다른 종류의 화제와 함께 수록된 것을 알 수 있다.²¹ 12첩으로 꾸며진 이 병풍은 본래 混修幻庵이라는 스님을 위해서 尹潏이라는 화가가 그린 작품인데, 후에 廣平大院君 李仁任(?-1388)이 소장하게 되었고, 병풍 중 첫 부분에 해당하는 네 폭이 춘하추동의 사시를 그린 것이었다. 사시도에 대한 이색의 시문은 사시의 변화에 따른 경물의 종류와 분위기를, 시인의 심상의 변화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각 계절을 읊은 부분을 발췌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春

구름이 첩첩이 쌓이고 물은 굽이굽이 흐르는데 雲重重又水洄洄
붉고 하얀 산꽃들 흐드러지게 피어 있네.…… 紅白山花爛熳開……

夏

나무숲은 우거져 침침하고 전각은 환희 밝은데 綠樹沉沉殿閣明
흰 구름 뜬 청산에는 시원한 여름바람 불어오네.…… 白雲青嶂夏涼生……

秋

가을이 산 숲에 들어오니 담황색으로 물들고 秋入山林著淡黃
구름 모습 물의 자태 쓸쓸하기만 하네.…… 雲容水態轉淒涼……

冬

백옥 같은 봉우리들 겨울 하늘 비치고 數峯如玉照寒天
흰 눈이 장송을 덮고 돌샘은 얼렸네.…… 雪壓長松凍石泉……

시를 통해서 이 그림에 묘사된 주요한 소재와 계절적인 분위기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특히 계절에 따라 변화한 꽃과 나무, 구름 등의 모습과 상태를 화사한 색감을 동원하여 대비시키며 묘사하고 있어서 화려한 채색화였을 가능성도 엿보인다. 경물의 종류와

²¹ 李穡, 「奉謝廣平李侍中所藏山水十二疊屏風」, 『牧隱詩藁』 권28, 진흥섭 편저, 『韓國美術史資料集成』 1(일지사, 1990), pp. 288-289.

소재는 조선 초 사시도들과 상통하는 요소가 적지 않지만 채색에 대한 강조는 수묵화로 그려진 조선 초의 작품들과는 다른 면모이다. 또한 사시도가 여러 화제들과 함께 재현되기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이후 조선 초에도 나타나고 있으므로 고려시대의 회화적 관습이 조선 초까지 이어진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고려 말 崔滋(1188-1260)가 지은 다음 시를 통해서 사시에 대한 고려시대 인사들의 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시는 만물의 변화와 사시의 운행을 논하면서 나랏일을 수행하는 뜻을 은유한, 즉 정치적 우의성을 담은 시라고 평가되었다.

지난 해 단풍이 붉으러 할 때
수레를 타고 남방으로 부임했네.
올해는 버들이 처음 누를 때에
깃발을 돌려 임금님 맞이하네.
萬物의變化는 끊임없고
四時의運行은 쉬지 않네.
흐르는 시냇물도 내 마음 같아
맑고 깨끗해 오직 한 빛이네.²²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고려 말 사대부들이 지녔던 자연과 사시, 사시도 등에 대한 인식은 이후 조선 초까지 일정한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원을 가진 사시라는 주제가 회화와 문학 방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제작, 향유된 것은 조선 초부터였다. 조선 초에는 사시를 주제로 한 사시가류 문학이 성립, 발전되었는데, 이 시기의 사대부들에 의하여 애호된 사시가는 관직에 봉사하다 은퇴한 사대부층의 강호생활을 노래한 시가 유형이다. 이 사시가들은 현실긍정적 가치관을 전제로 하면서도 영원회귀의식과 이상향의 추구라는 주제의식을 지니고 있었다.²³ 그리고 같은 시기에 사시도와 사시팔경도 또한 사대부층이 선호한 화제로서 성립, 유행하였다.

조선 초의 사시도와 사시팔경도는 『조선왕조실록』과 安平大君(1418-1453)의 기록, 申叔舟(1417-1475), 徐居正(1420-1488), 李承召(1422-1484), 朴祥(1474-1530), 沈義(1475-?),

²² 이 시는 본래 崔惟濟가 지은 것으로 최자가 이 시를 『보한집』에 싣고 품평한 것이다. 최자 저, 이화형 역, 『보한집』(지식을 만드는 지식, 2011), p. 89.

²³ 김신중, 「한국 사시사의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1992), pp. 130-133 참조.

蘇世讓(1486-1562) 등 이 시대를 이끌어간 왕실인사와 유학자 관료들의 기록에 나타나고 있다.²⁴ 먼저 1457년 세조는 궁중에서 여러 관료들과 활쏘기 모임을 가진 뒤 노니는 자리에서 四時圖 簇子를 내어 群臣에게 보이고, 어제시를 지어 成任으로 하여금 그 족자에 쓰게 하고 신하들에게 廣進하도록 명하였는데, 어제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가시 올타리에 참새 많이 모이고,
 복사꽃 만발하여 가지마다 붉구나.
 사면이 온통 봄빛으로 덮였는데,
 노니는 나비는 동서쪽이 없어라.
 하루아침 서리에 단풍잎 떨어지니,
 푸르고 푸른 저 소나무 홀로 서 있네.²⁵

이 일화를 통해서 사시도가 조선 초 궁중에서 제작, 감상되고 군신이 함께 어우르는 화제로 통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이 사시도는 족자라고 하였는데, 네 개의 족자인지 한 개의 족자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다른 기록들과 비추어 볼 때 네 개의 족자에 사시를 나누어 그린 작품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시의 내용 상 역시 채색도 적지 않게 들어간 작품이었을 것으로 보이며, 사시의 변화를 강조함으로써 절기의 규칙성과 우주적인 질서, 정치의 위계질서 등을 은유하였음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은유성을 지닌 작품이었기에 군신이 공유할 있었을 것이다.

이 시와 유사한 성격의 시로서 안평대군이 소장한 사시도에 대한 신숙주의 시를 들 수 있다.

산 가운데 맑은 기운 아직 선명하게 빛나지 않는데 山中淑氣未淸暉
 외딴 곳의 오래된 절에 동풍이 사랑이네. 地僻寺古東風微
 조물주의 변화가 천기를 희롱하고 造物變化弄天機
 신령스런 채찍으로 귀신을 몰아 용을 찾아간다네. 神鞭鬼馭搜虵螭

²⁴ 『世祖實錄』 권10, 3년(1457) 11월 27일; 『中宗實錄』 권89, 33년(1538) 11월 을미25일; 신숙주, 「題匪懈堂四時圖」, 『保閑齋集』 권12 七言古詩; 서거정, 「題山水圖8疊」, 『四佳集』 권46 詩類, 진흥섭 편저, 『韓國美術史資料集成』 2(일지사, 1991), p. 72; 박祥, 「題叔保令公四時圖小屏」, 『訥齋集』 권4; 沈義, 「題四時畫簇」, 『大觀齋集』 권2, 진흥섭 편저, 앞의 책, p. 57; 蘇世讓, 「四時圖4幅」, 『陽谷集』 권3, 위의 책, p. 56.

²⁵ 『세조실록』 권10, 3년(1457) 11월 27일조.

나귀타고 그윽하게 즐거운 일 토론하며 尊驢幽討樂事多
 앉아서 동정호에 이는 가벼운 파도 느껴보네. 坐覺洞庭生輕波
 바람은 자고 구름은 파교의 새벽을 거두어들이니 風定雲收瀟灑曉
 아름다운 나무와 꽃 노시인을 재촉하누나. 玉樹瓊花屬詩老²⁶

이 시는 특히 안평대군이 소장한 작품에 대한 시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화가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제작시기는 15세기 전반 경일 것이고, 안평대군이 애호한 화가 안견의 작품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니, 현존하는 《사시팔경도》와 여러 가지 점에서 비교될 수 있겠다. 한 수의 시로 이루어져 있지만 사시가 분리된 작품이었을 것으로 여겨지며,²⁷ 시에서는 사시를 각기 두 구절씩 나누어 거론하면서 사시를 대표하는 산, 강물, 古寺, 대기의 상태, 파교라는 특정 지명 등을 읊조리면서 계절에 따른 변화와 은유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15세기 관학자를 대표하는 인사 중 한 사람인 서거정은 8폭의 산수도에 대한 시를 남겼는데, 시의 내용 상 사시팔경도를 읊은 것으로 보인다.²⁸ 이 시는 각 계절을 두 수로 나누어 기록하였으며, 마치 수목산수화를 보고 쓴 듯하며 소재와 분위기 등에서 현존하는 사시팔경도와 근접한 분위기와 요소들로 구성되었다.

제1폭(이른 봄)	제2폭(늦은 봄)	제3폭(이른 여름)	제4폭(늦은 여름)
산봉우리/폭포/여행객/ 다리/대나무/소나무	푸른 산/林亭/배/강물/ 바람/석양	소낙비/호수/바람/고목/ 먼 누대/마을배/시내	산봉우리/울창한 나무/ 驕驢인물/다리 위 인물

제5폭(이른 가을)	제6폭(늦은 가을)	제7폭(이른 겨울)	제8폭(늦은 겨울)
맑은 하늘/달빛/ 기러인물/석양/배/ 가시울타리/ 밋집	고목/절벽/누각/ 바람/절/돌아오는 배/ 석양/사람	눈/기러기/집	검은 하늘/눈/은빛 세계/ 숲/瑤臺

²⁶ 申叔舟, 「題匪懈堂四時圖」, 『保閑齋集』, 진흥섭 편저, 『한국미술사료집성』2, p. 56 참조.

²⁷ 세조의 어제시와 관련된 작품과 함께 소세양이 사시도 4폭에 대한 한 수의 시도 존재하고 있다. 소세양, 「사시도4폭」, 『陽谷集』 권3 참조.

²⁸ 서거정, 「題山水圖8疊」, 『四佳集』 권46 詩類; 서거정과 비슷한 시기에 활동한 관학파인 이승소가 四景을 그린 그림에 대해 지은 시도 사시도를 보고 지은 것으로 여겨진다. 묘사된 주제와 소재, 분위기 등이 현존하는 사시도 및 사시팔경도와 공통된 요소들이 적지 않다. 이승소, 「화사경」, 『삼탄집』 4권, 시, 이승소 지음, 정선용 옮김, 『삼탄집』1(한국고전번역원, 2008), p. 397 참조.

이제까지 살펴 본 기록을 통해서 이 시기의 사시도 및 사시팔경도가 왕과 관료들에 의하여 주문, 감상된 것을 알 수 있다. 세종, 안평대군, 신숙주, 서거정 등 조선 초 왕실과 관료들의 詩文에는 사시도를 통해서 태평성대를 즐기는 낙관적 정서와 이상적인 자연경을 흠상하는 고답적인 풍류의식 등이 나타나 있다. 즉, 문학방면에서 사시도가 성리학을 지지한 사대부층에서 유행된 것과 같이 사시도 또한 동일한 계층 사이에서 유사한 사상과 정치관을 배경으로 선호된 것이다. 이 점은 사시도의 사상적, 정치적 성격을 이해하는 하나의 전제가 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조선 초의 사시도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또 한 가지 사실은 사시를 팔경으로 나누어 그린 사시팔경도가 유행한 점이다. 조선 초 이후 형성된 팔경의 개념과 유행은 한편으로는 문학을 통해 정치적 이상을 전달하는 것과 왕도정치를 칭송하는 歌頌王化를 중시하던 館閣派 유학자들의 사상적, 문예적 경향과 관련이 있다.²⁹ 또 한편으로는 瀟湘八景圖의 유행과, 다른 한편으로는 北京八景의 유행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³⁰ 王都와 전국 각지의 명승지를 팔경으로 나누어 제영하는 題詠詩의 유행은 가송왕화의 개념을 구현한 대표적인 현상이다. 조선 초 사대부들은 가송왕화를 통해 국가기맥을 드러내는 것이 문학의 임무라 여겼고, 그들이 보는 현실은 곧 유학적 이상이 실현된 세계로 인식하였다.³¹ 이러한 배경에서 팔경을 지정하거나, 읊거나, 그린다는 것은 왕도정치가 이루어진 시절을 긍정하고 왕도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상적인 승경을 대변하는 새로운 화제로 변화된 소상팔경도의 등장 또한 주목되는 현상이다. 중국의 북송대에 宋迪(1015-1080)이 제작한 《소상팔경도》는 가장 이른 시기에 제작된 소상팔경도 중 하나로 후대에 미친 영향이 지대한데, 본래 이 그림은 그의 정치적인 불우함을 한탄하는 비감한 정서를 담아낸 것이다.³² 소상팔경도의 이러한 주제 의식

²⁹ 팔경의 개념과 팔경시의 유래는 고려시대 소상팔경도의 보급과 관련이 있으며, 조선 초 『大明統一志』를 모방한 지지서인 『동국여지승람』에 제영조가 설치되어 가송왕화가 더욱 유행하였다. 관료문인들의 승경, 명소에 대한 제영은 왕화가송이란 의례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전수연, 「신도팔경의 서경시적 특성」, 『민족문화』 16(1993), pp. 89-116; 안장리, 「한국팔경시 연구」,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1996); 이종묵, 「서거정의 삶과 문학 활동」, 『서거정 문학의 종합적 검토』(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8), p. 76; 최은주, 「조선전기 팔경시의 창작경향」, 『대동한문학』 15(2001), pp. 299-331; 조영호, 『15세기 관료문인의 한시연구』(한국학술정보, 2005), p. 190; 이 시기 관학파의 유학사상에 대해서는 「제2절 중앙집권화와 관학파 유학사상」, 『철학사상편』(상), 한국유학사상대계Ⅱ(한국국학진흥원, 2005), pp. 259-276 참조.

³⁰ 팔경시가 이보다 더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성행하였다는 내용의 반론과 北京八景詩의 영향으로 보는 견해로는 조영호, 위의 책, pp. 194-196 참조.

³¹ 김성룡, 『여말선초의 문학사상』(한길사, 1996), pp. 236-237 참조.

³² 소상팔경도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로는 Alfreda Murck, *Poetry and Painting in Song China: The Subtle Art of Dissent*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00) 참조.

과 특징은 중국의 경우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북송대 소상팔경도의 순서는 詩의 형식을 토대로 형성된 것으로 정치적 불우함을 비탄하는 의식의 전개를 반영한 것이었다. 중국에서도 남송, 원대에는 소상팔경도의 순서와 우의성이 북송과는 다르게 변화하였다. 그러나 조선 초에 유행한 소상팔경도의 순서와 개념은 중국과 구별되는 순서로 전개되는 일이 일어났고, 사시라는 개념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다.³³ 이는 아마도 이 시기에 유행한, 八景에 담겨진 가송왕화의 개념과 관료들의 유학적 가치관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소상팔경이 이상적인 경관을 대변하는 화제로, 태평시대의 勝景樂土에 대한 동경을 반영한 화제로 변화된 것을 의미한다.³⁴ 이러한 재해석의 여파로 소상팔경도는 궁중과 관료들의 지지를 받는 화제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유학적 사상과 정치적 이상을 예술방면에도 구현하고자 하였던 조선 초 유학자 관료들의 의식은 사시도가 팔경을 갖춘 사시팔경도로 변화하는 데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정리하였듯이 사시도와 사시팔경도에 나타나는 가변성과 항상성의 요소는 사시의 순환에 따라 만물이 생성, 변화하는 모습을 담아내는 동시에 그러한 현상의 저변에 있는 근본원리를 담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조선 초기 궁중과 유학자 관료들이 가졌던 『주역』 중심의 사상 및 자연관과 관련된 특징으로 해석할 수 있다.³⁵ 이 작품들을 주문, 감상하였던 궁중과 유학자 관료들은 특히 변화를 강조하는 주역적인 사상을 중시하면서 정치현실을 변화, 제정하고 있었다.³⁶ 사시도의 공간에 재현된 가변성과 항상성은 주역의 원리인 변화하는 것, 곧 變易 또는 易과 변화하지 않는 것, 곧 不易의 사상을 가시화한 것이고,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가던 이들의 유학적, 정치적 이상을 시각적으로 표상한 방식이었다. 그리고 왕도정치가 구현된 태평성대라는 정치적 이상을 현실 속에서 뿐 아니라 문화와 음악, 예술 등 관각 예술로서도 표현하고자 하였던 이 시대 왕실과 유학자 관료들의 유학적 정치관과 예술관을 배경으로 사시도에 팔경의 개념을 결합하는 전환이 일어났다. 이처럼 관각예술적인 성격을 구비하게 되면서 사시팔경도는 관념산수화의 대표적인 주제 중 하나로 유행되기 시작하였을 것이다.

³³ 조선 초의 소상팔경도가 사시를 포함한 방향으로 변화한 점에 대해서는 안휘준, 송희경, 衣若芬의 소상팔경도에 관한 앞의 논문 참조.

³⁴ 소상팔경시 가운데 표출된 유학적 이념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유재, 「한국 ‘소상팔경’시의 儒家 성향 연구」, 『한국문화와 예술』 13(2014), pp. 75-108; 이 글에서는 조선조 전반적으로 유가적 성향이 주로 나타났는데, 특히 15세기 조선 전기 중에는 平天下型의 적극적인 인식이 드러났다고 하였다. 이는 이 시기 소상팔경도의 성격과도 합치되는 평이라 여겨진다.

³⁵ 김홍경, 앞의 책, p. 104; 성백효 역주, 앞의 책, 上, pp. 5-14 참조.

³⁶ 조영호, 앞의 책, pp. 50-55.

Ⅲ. 官僚契會圖의 공간:眺望과 風水

조선 초 관료들의 계획이 성행하였다. 관료들이 계획을 즐기는 관습은 당시를 왕도정치가 구현된 태평성대로 보는 유학적 가치관을 배경으로 형성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모임을 기록한 계획도가 제작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관료문인들은 현실 속의 산수자연은 國家氣脈을 드러낼 수 있는 소재일 뿐 아니라 개인적인 서정을 표현하는 원천이라 여겼다. 아름다운 산수자연에 국가의 기맥이 두루 퍼져 있다면, 산수자연이 아름다운 곳에서 노니는 것은 곧 임금의 은혜를 입어서 태평시대를 장식하는 행위로 인식되었다.³⁷ 이처럼 승경은 태평성대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관료들의 관심을 끌었을 뿐 아니라,³⁸ 다른 한편으로는 고답적 풍류가 실현된 도장으로서의 의미도 있었다.³⁹

관료들의 계획을 기록한 실경산수화는 15세기에는 契會圖, 契會圖 등 다양한 용어로 불리다가 16세기에 들어오면서 계획도라는 명칭으로 정착되었다.⁴⁰ 조선 초의 계획도들은 同官, 同榜, 同庚 등 다양한 계기로 제작되었으면서도 작품의 구성과 내용, 소재 면에서는 典型化의 현상이 나타났다.⁴¹ 계획도 가운데 특히 한강의 東湖에 위치한 제천정에서의 계획을 담은 제천정 계획도와 西湖에 위치한 잠두봉에서의 계획을 담은 잠두봉 계획도는 가장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이다(도 4).⁴² 필자는 이 두 종류의 계획도가 일정한 공간을 眺望이라고 하는 개념과 시점으로 표현하였음을 거론한 바 있다. 또한 동호 독서당에서의 계획을 담은 〈讀書堂契會圖〉를 비롯하여 실재하는 공간을 風水의 개념과 시점을 토대로 재현한 계획도의 유형도 존재하였다.

본고에서는 이 두 가지 유형의 계획도를 중심으로 조선 초에 유행한 관료계획도의 사회적 기능과 정치적 의미를 읽어 보려고 한다. 나아가 이러한 유형의 계획도를 같은 시대에 형성, 유행된 사시팔경도와 함께 비교하면서 조선 초기 관념산수화와 실경산수화에 담

37 姜希孟, 「西湖巒嶺契會序」, 『私叔齋集』권8, 韓國文集叢刊 12, pp. 122-123; 박은순, 앞의 논문(1999), pp. 49-50; 박은순, 앞의 논문(2002), p. 97.

38 김성룡, 앞의 책, p. 152; 1480년 성종은 열두 폭 書屏을 내리고 문신에게 칠언율시를 한편씩 쓰도록 하였고, 관료문인들은 국가적인 행사로 시를 짓곤 하였다. 왕화가 고루 미친 태평성세인지라 군신이 시주로 즐기고 이를 시로 담은 것 자체를 아름다운 일로 본 것이다. 이종목, 앞의 책, p. 76.

39 조영호, 앞의 책, p. 202.

40 조선시대 계획도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주3 참조.

41 박은순, 앞의 논문(1999) 참조.

42 현존하는 잠두봉 계획도는 1630년대의 〈宣傳官契會圖〉(호림박물관), 1656년 경의 〈守門將契會圖〉(육군박물관) 등이 있다. 본고에서는 연대가 빠르고 도판의 상태도 좋은 이 작품을 제시하였다.

겨진 사회적, 정치적 함의를 구명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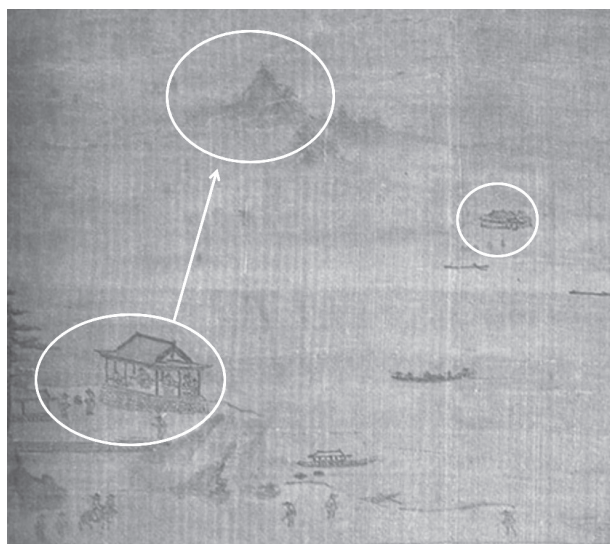
조선 초의 관료들이 계회를 가진 장소들은 의외로 한정되어 있었다. 관료들은 한강변에 나가서 계회를 즐기곤 하였는데, 가장 대표적인 장소가 동호가의 제천정과 서호가의 잠두봉이었다. 이 두 장소들에서의 계회를 표현한 작품들을 살펴보면, 일정한 공간구성과 소재, 기법을 구사하는 경향이 형성된 것을 알 수 있다. 제천정에서의 계회를 그린 작품의 경우 근경 왼쪽 구성에 커다란 누각이 나타나고, 그 안에서 관료들이 관복을 입은 채 계회를 가지는 모습으로 재현되었다(도 4, 도 4-1). 누각 주변에는 음식과 술 등을 준비하거나 나르는 모습들이 있어서 음주를 곁들인 풍류넘치는 모임이었음을 시사한다. 중경에는 너른 한강줄기가 나타나고, 물 건너편 원경 하단 중앙에는 작지만 또렷하게 보이는 건물이 그려져 있고, 그 위쪽으로 웅장한 산이 솟구친 모습이다. 1534년의 〈銀臺契會圖〉,

1540년의 〈司饗院契會圖〉, 16세기 중엽 경의 王文迪 제작이 있는 〈契會圖〉,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인 〈平市署契會圖〉 등 일군의 작품들은 유사한 공간개념과 구성, 소재, 기법을 구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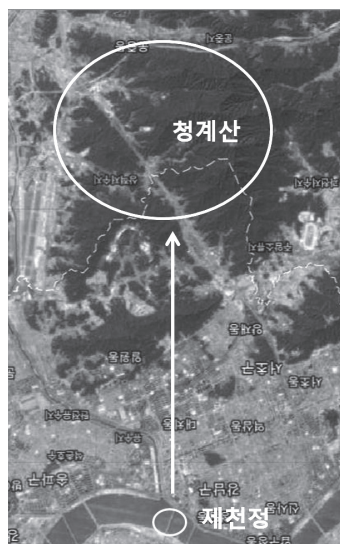
이러한 계회도들에는 한강 동호가에 있던 가장 큰 공해 중 하나인 제천정에서의 계회와 그 주변 경관이 재현되었다(도 4-1, 도 5). 근경에 나타나는 계회가 이루어지는 누각은 동호의 제천정이고, 강 건너편에 작게 보이는 건물은 한강진 건너편에 있던 공적인 숙박시설인 沙平院이다. 그 위쪽으로 솟아오른 산은 동호에서 보이는 청계산을 그린 것이다. 계회에 참석한 인사들은 관복을 입고 있으며 주변에서는 계회를 위한 음식을 준비하고 나르는 인물들이 보인다. 이 음식과 술은 아마도 공적으로 제공된



도 4 필자미상, 〈司饗院契會圖〉, 1540년 경, 견본수묵, 86.0×56.3cm, 일본 개인소장



도 4-1 필자미상, <사옹원계회도> 부분



도 5 제천정에서 보이는 청계산 (구글 위성사진)

것이며, 관복을 입고 있는 것은 이들의 모임이 비록 풍류적인 분위기이지만 공적인 성격의 모임인 것을 시사한다. 이 장면은 계회가 있었던 公廡와 그곳에서 조망되는 아름다운 산수자연을 재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유명한 누각과 정자에서 있었던 계회를 기록하면서 누정에서 조망되는 주변 경관과 前景을 재현하는 방식은 ‘眺望’이라고 하는 개념과 관점을 적용한 것이다. 조망이란 누각과 정자, 또는 승경을 보는 장소를 선정하고 그곳에서 보이는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하듯이 재현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개념과 방식은 특히 조선 초에 유행하기 시작하였는데, 『동국여지승람』 중 제영조의 설정과 동시에 전국 각지의 승경처에 공해로서의 누각과 정자를 세워 태평성대의 승경을 감상하게 하도록 한 것에서 유래되었다. 조선 초 누정이란 곧 하늘과 땅, 현실과 이상향을 이어주는 매개자의 역할을 하는 곳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누정에서 보여지는 국토의 아름다움은 곧 성리학을 근간으로 한 왕의 德化가 현실 속에서 현현된 것으로 여겨졌다.⁴³

조선 초 이후 세워진 수많은 누정들과 관련된 문화와 이곳에서 이루어진 寫景文學은 각각 樓亭文化와 樓亭文學이라고 명명되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배경을 감안하여 누정을 중심으로 하면서 그곳에서 보이는 경관이 재현된 실경산수화를 樓亭山水畵라고 명명한

⁴³ 김성룡, 앞의 책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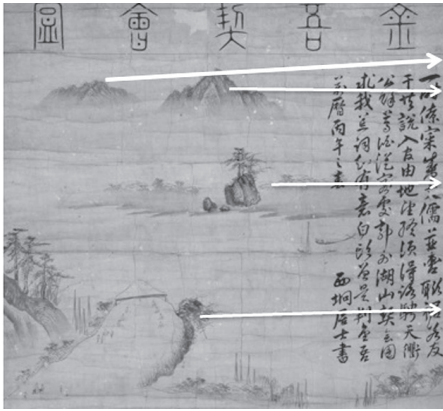
바 있다.⁴⁴ 이와 같은 현상은 15세기 즈음부터 대두된 것으로 이 시기 궁중과 관료들이 지녔던 유희적 가치관 및 정치관과 관련된 것이다. 조정에 봉직한 관료들이 공적인 누각인 公廡에서 관복을 입은 채 대낮에 풍류 넘치는 계회를 가진다는 것은 태평성대에 동참한 관료들이 누린 명분 있는 여유였다. 이들은 관행 상 일정한 장소에서 계회를 가지게 되었고, 특히 한강변에 위치한 공해인 제천정에서의 계회는 그러한 상징성을 부각시키는 전형적인 관례로 정착되었다. 현존하는 작품과 문헌기록을 통해서 사옹원, 평시서, 시간원 등 다양한 관아의 관료들이 이곳에서 계회를 가졌던 것을 알 수 있다. 제천정의 모습과 그곳에서 조망하는 경관으로 구성된 공간을 재현한 이러한 유형의 계회도는 곧 관료문인들의 유희적인 시대관과 가치관,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시각화한 방식이었던 것이다.

관료들의 계회가 자주 있었던 또 다른 장소는 한강의 서호가 양화진 옆에 위치한 잠두봉이다(도 6, 도 6-1, 도 6-2, 도 6-3). 잠두봉은 강변에 가파르게 돌출한 비교적 작은 언덕이어서인지 누정은 없었다. 그러나 동호의 제천정에서 시작되던 하였던 한강 船遊의 종착점이 양화진과 잠두봉이 위치한 서호 즈음이었고, 잠두봉 언덕에는 차일을 칠만한 공간이 있었다. 그 앞에는 조그마한 섬처럼 보이는 선유봉이 있고, 멀리에는 우뚝 솟은 관악산과 청계산이 보이기 때문에 잠두봉은 서호 최고의 전망처였다. 현존하는 잠두봉계회도들은 근경에 잠두봉의 모습이 크게 나타나고 그 위에 차일을 치고 계회를 즐기는 관복을 입은 관료들의 모습이 작게 그려져 있다. 잠두봉 앞에는 한강이 흐르고 강 중간 즈음에 우뚝 솟은 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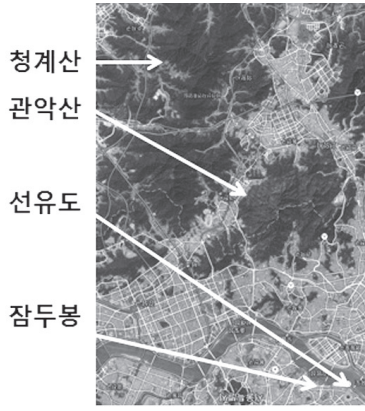


도 6 필자미상, <金吾契會圖>, 1606년 경, 지본수묵, 93.5×63.0cm, 개인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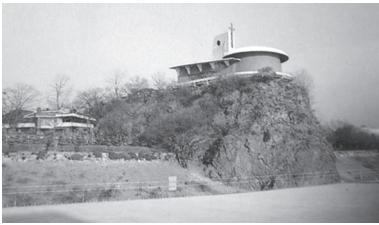
⁴⁴ 박은순, 앞의 논문(2006) 참조.



도 6-1 <금오계회도>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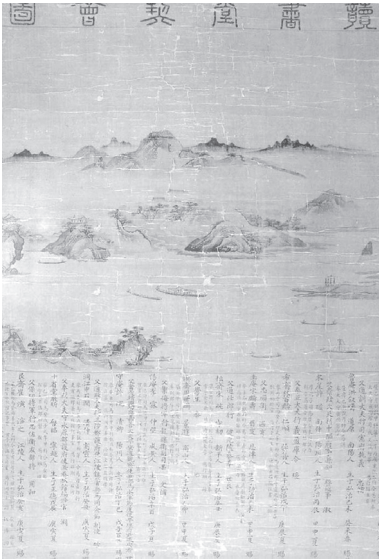


도 6-2 구글 위성사진



도 6-3 잠두봉 실경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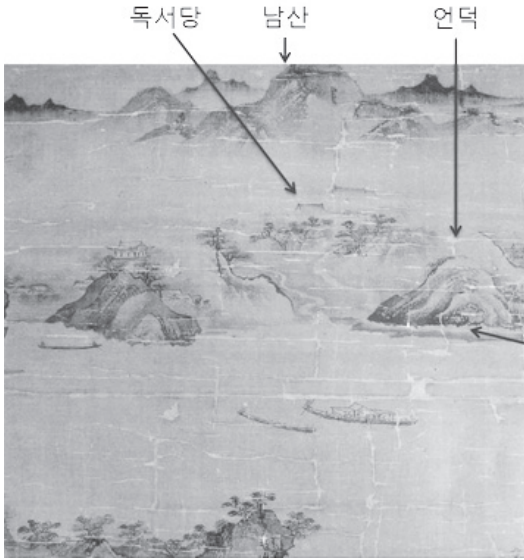
유봉이 등장하며 화면의 왼쪽 면 반향에 뾰족한 산이 윤곽형으로 그려지는데, 이는 관악산을 그린 것이다. 잠두봉에서의 계회를 재현한 실경산수화들은 대부분 일정하게 유형화된 공간개념과 구성, 소재, 기법 등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작품들은 역시 조망이라고 하는 관점을 통해서 아름다운 승경을 재현하여 태평성대의 王恩을 칭송하고, 왕도정치에 참여한 관료로서의 자부심을 전달하였다.



도 7 필자미상, <讀書堂契會圖>, 1531년경, 견본수목, 91.5×62.3cm, 일본 개인 소장

조선 초의 계회도 가운데 한 가지 유형이 조망의 관점을 재현하였다면, 독서당에서의 계회를 재현한 <독서당계회도>들은 風水라는 관점을 제시한 점에서 주목된다(도 7).⁴⁵ 이 작품들에는 계회에 참석한 관료들의 모습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독서당과 주변의 경관이 부각되어 있다. <독서당계회도>는 국가적인 인재가 모인 독서당을 중경의 중앙, 明堂 자리에 표현하고 근경에는 한강과 안산의 개념에 해당하는 언덕을 두었으며, 원경에는 主山과 祖山에 해당하는 산줄기들을 대관적으로 재현하였다(도 8-1, 도 8-2, 도 8-3). 독서당 뒤쪽으로 등장

⁴⁵ 박은순, 앞의 논문(199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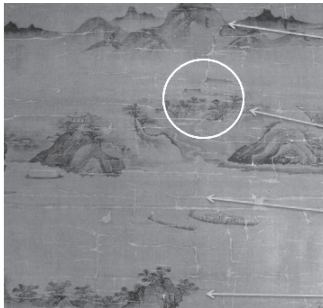
도 8-1 <독서당계회도>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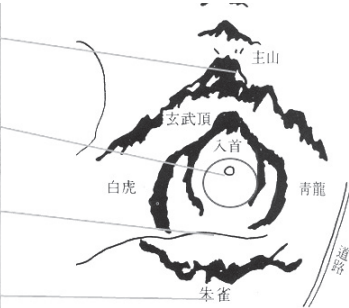
도 8-2 독서당 주변 실경사진



도 8-3 독서당 한강변 언덕



도 9 <독서당계회도>부분



도 9-1 풍수개념도

하는 산은 독서당이 위치하였던 응봉 줄기이고, 그 뒤쪽으로 이어지는 주산에 해당하는 남산이 부각되었으며, 더 멀리로는 한양의 조산에 해당하는 삼각산과 도봉산 등이 윤곽형으로 나타나고 있다(도 9,

도 9-1). 독서당에서 계회를 가지고 이러한 작품을 제작한 관료들은 국가적인 과업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하기 위해 양성되고 있던 인재들이었다.

이 작품의 공간개념과 삼단 구성은 전 안견필 《사시팔경도》와 비교될 만한 요소가 있다(도 8-1, 도 10). 그러나 실제하는 경물을 재현한 이 장면은 공간개념과 구성, 소재 등을 풍수 개념에 맞추어 재조정된 것으로 보이며, 결과적으로 조선 초부터 유행한 地靈人傑論을 시각적으로 표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법 면에서도 준법과 수지법 등에서 두 작품은 일정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지령인결론은 “인결과 지령의 관계는 대개 땅이 영험하면 사람이 반드시 결출하고 사람이 결출하면 땅이 더욱 영험해 진다”는 믿음으로



도 10 傳安堅, 〈晩春〉《四時八景圖》화첩 中

조선시대 동안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⁴⁶ 지령인결론은 『동국여지승람』의 편찬의도에도 반영되었는데, 산천의 영험함과 인물의 걸출함을 부각시켜 결과적으로 왕위를 고양할 뿐 아니라 집권 관료층의 지위를 현양하고자 하였다.⁴⁷ 화가는 독서당과 그 주변의 아름다운 경관 및 걸출한 지세를 부각시킴으로써 그림을 주문한 관료들의 자부심과 공적인 의식을 은유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풍수적인 개념을 적용한 계획도는 이후 지속적으로 등장하였다.⁴⁸ 그리고 이러한 전통을 기반으로 하여 17세기에 제작된 선비들의 처소를 그린 幽居圖와 別墅圖 등에도 풍수적인 개념이 적용되었는데, 이 경우 조선 초 관료들이 지녔던

정치적인 의식과는 차별되는 성향과 은유성이 나타나고 있다.⁴⁹

이처럼 조선 초부터 성행한 계획도 가운데 대표적인 유형들을 통해서 조선 초 관료들이 가졌던 유학적 가치관과 왕도정치가 실현된 태평성대라는 시대관, 이러한 시대를 만드는 데 기여한 관료로서의 자부심 등을 읽어 볼 수 있다. 관료계획은 관료들 간의 친목과 결속을 위해 형성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국가적으로 용인, 장려된 행사였고, 이를 기록한 계획도는 태평성대에 대한 찬양과 왕권에 대한 칭송이라는 사회적 기능과 정치적인 함의를 담아내기 위한 시각적 장치였던 것이다.

46 서거정, 「豊川八景詩并序」, 『사가집』 시집, 보유3.

47 李泰鎭, 「《동국여지승람》 편찬의 역사적 성격」, 『진단학보』 46·47(1979), pp. 257-258.

48 그 한 예로서 구 사천자 소장품이었던 〈조라포남봉관해도〉(1586-1587년 경)는 경남 거제도 조라포에서의 요계를 그린 작품으로 풍수적인 구성을 사용하였다.

49 박은순, 「朝鮮 中期 性理學과 風水의 實景山水畫-〈石亭處士幽居圖〉를 중심으로」, 『시각문화의 전통과 해석-정재 김리나 교수 정년퇴임 기념 미술사 논문집』(예경, 2007), pp. 389-417.

IV. 맺음말

본고에서는 조선 초기 관념산수화의 한 유형인 《사시팔경도》와 실경산수화의 대표적인 유형인 관료계회도를 중심으로 조선 초기 산수화의 성격과 기능, 상징성, 사회정치적 함의의 문제를 정리하였다. 《사시팔경도》는 만물을 대변하는 산수자연이 담겨진 공간으로 재현되었고, 사시의 변화에 따른 경물의 변모상을 담아내었다. 화면 속 경물들은 음양오행의 순환을 반영하며 천지만물이 변화하는 양상으로 재현되었다. 사시도는 고려시대부터 제작되어 왔지만, 조선 초에는 사시를 팔경으로 나누어 재현한 사시팔경도가 새롭게 유행되었다. 이는 국가의 기맥을 담아낸 현실경을 읊은 팔경시 및 이상경을 담은 소상팔경도의 유행과 관련이 있는 현상으로 여겨진다.

《사시팔경도》에 재현된 여덟 장면을 살펴보면, 각 장면의 공간개념과 구성, 소재, 표현기법에 일정한 규칙성과 반복성이 나타나고 있다. 즉 이 작품에는 장면마다 변화해가는 가변성과 변화 가운데서도 일정한 법칙이 지켜지는 항상성, 易과 不易의 요소들이 교차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양면성은 사시도와 사시팔경도를 주문하고 감상하였던 계층인 왕실과 유학자 관료 및 선비들이 지녔던 주역적인 자연관과 시대관, 이러한 원리를 토대로 형성된 사회정치적인 의식이 시각적으로 표상된 방식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조선 초의 관료계회도는 왕조의 창업과 경영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유학자 관료들의 모임을 기록한 작품이다. 이 즈음의 관료계회는 한강 동호의 제천정과 서호의 잠두봉에서 이루어지곤 하였다. 그리고 계회도에는 제천정과 잠두봉에서의 계회장면이 前景에 그려지고, 중경과 원경에는 그곳에서 보이는 경물이 담겨지곤 하였다. 이 작품들의 공간개념과 구성에는 조망과 풍수라는 두 가지 개념이 적용되었다. 이러한 계회도들은 왕도정치가 이루어진 현실을 은유하는 이상적인 자연경을 바라다 보는 방식인 조망과 전통적인 풍수관 및 유학이 결합하여 형성된 조선적인 풍수의 개념이 시각화된 산물이었다. 실경으로 표현된 계회도는 태평성대의 왕은을 칭송하는 관료들의 유학적 가치관과 정치관, 그러한 시대를 창출하는데 기여하였다는 관료로서의 자부심, 관료 간의 우의 등이 은유적으로 표상된 시각예술인 것이다.

조선 초 사시팔경도와 계회도는 왕도정치의 이상과 실현을 구가하는 관각예술을 중시한 公利的 예술관을 배경으로 등장하였다. 이 시기에 제작된 모든 산수화를 동일한 성격과 기능을 가진 예술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 그 가운데 관각예술로서의 특징이 부각된 일군의 작품들이 존재하였다는 사실 또한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작품들은 개인적인 서

정을 담아내기 보다는 공적인 의식과 시대관을 표상하고, 예술의 사회정치적 기능을 시각적으로 구현하고 있다. 이같은 회화들은 사회적, 정치적 기능을 수행한 문학 및 음악과 함께 이 시기 왕실과 관료들의 유학적 사상과 정치적 의식을 담아낸 공적 예술로서 정립, 유행되었다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주제어(Key Words)_사시도(Four Seasons), 사시팔경도(Eight Views of the Four seasons), 소상팔경도(Eight views of the Xiao and Xiang Rivers), 계획도(painting of Scholar Officials' Gathering), 관념산수화(ideal landscape), 실경산수화(real landscape), 팔경(eight views), 안견(An Gyeon)

■ 투고일 2015년 9월 7일 | 심사개시일 2015년 9월 15일 | 심사완료일 2015년 10월 20일 | 게재확정일 2015년 12월 14일 ■

참고문헌

- 김성룡, 『여말선초의 문학사상』, 한길사, 1996.
- 김신중, 「한국 사시사의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 김홍경, 『조선초기 관학파의 유학사상』, 한길사, 1996.
- 박은순, 「16世紀 讀書堂契會圖 研究: 風水의 實景山水畫에 대하여」, 『美術史學研究』 212, 1996, pp. 45-75.
- _____, 「朝鮮初期 江邊契會와 실경산수화: 典型化의 한 양상」, 『美術史學研究』 221·222, 1999, pp. 43-75.
- _____, 「朝鮮初期 漢城의 繪畫-新都形勝 升平風流」, 『講座美術史』 19, 2002, pp. 97-129.
- _____, 「조선시대의 누정문화와 실경산수화」, 『美術史學研究』 250·251, 2006, pp. 149-186.
- _____, 「朝鮮 中期 性理學과 風水의 實景山水畫-〈石亭處士幽居圖〉를 중심으로」, 『시각문화의 전통과 해석-정재 김리나 교수 정년퇴임 기념 미술사 논문집』, 예경, 2007, pp. 389-417.
- 박해훈, 「조선시대 소상팔경도 연구」,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 成百曉 譯註, 『周易傳義』上, 전통문화연구회, 2007.
- 송희경, 「한·중 소상팔경도의 조형성과 표상 비교: 소상야우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와 예술』 13, 2014, pp. 109-139.
- 신영명, 우응순 외, 『조선중기 시가와 자연』, 태학사, 2002.
- 안장리, 「한국팔경시 연구」,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 安輝濬, 「16世紀 契會圖를 통해본 朝鮮王朝時代 繪畫樣式의 變遷」, 『美術資料』 18, 1975, pp. 36-42.
- _____, 「傳 安堅筆 「四時八景圖」」, 『考古美術』 136·137, 1978.3, pp. 72-78.
- _____, 「國立中央博物館 所藏 「瀟湘八景圖」」, 『美術史學研究』 138, 1978, pp. 136-142.
- _____, 『韓國繪畫史』, 一志社, 1980.
- _____, 『韓國繪畫의 傳統』, 文藝出版社, 1988.
- 여기현, 「소상팔경의 시적 형상화 방식」, 『반교어문연구』 15, 2003, pp. 37-64.
- 윤진영, 「朝鮮時代 契會圖 研究」,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 李炳赫, 『여말선초 한문학의 재조명』, 태학사, 2003.
- 이승소 지음, 정선용 옮김, 『삼탄집』 1, 한국고전번역원, 2008.
- 이종묵, 「서거정의 삶과 문학 활동」, 『서거정 문학의 종합적 검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8.
- 李泰鎭, 「《동국여지승람》 편찬의 역사적 성격」, 『진단학보』 46·47, 1979, pp. 252-258.
- 衣若芬, 「소상팔경: 동아시아 공통 모티브의 문화현상」, 『한국문화와 예술』 13, 2014, pp. 5-25.
- 전경원, 『소상팔경-동아시아의 시와 그림』, 건국대학교출판부, 2007.
- 전수연, 「신도팔경의 서경시적 특성」, 『민족문화』 16, 1993, pp. 89-116.

조영호, 『15세기 관료문인의 한시연구』, 한국학술정보, 2005.
진홍섭 편저, 『韓國美術史資料集成』1, 2, 일지사, 1990.
『철학사상편』(상), 한국유학사상대계Ⅱ, 한국국학진흥원, 2005.
최은주, 「조선전기 팔경시의 창작경향」, 『대동한문학』 15, 2001, pp. 299-331.
최자 저, 이화형 역, 『보한집』, 지식을 만드는 지식, 2011.
한정희, 「명청대와 강호시대의 소상팔경도」, 『온지논총』 34, 2013, pp. 73-114.

Lewis, Mark Edward. *The Construction of Space in Early China*, New Yo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2006.

Murck, Alfreda. *Poetry and Painting in Song China: The Subtle Art of Dissent*, Cambridge: Harvard Yenching; Harvard University Press, 2000.

Shirane, Haruo. *Japan and the Culture of Four Seasons: Nature, Literature, and the Art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2.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조선 초 관념산수화의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인 《四時八景圖》와 실경산수화의 대표적인 유형인 官僚契會圖들을 중심으로 조선 초기 산수화의 상징적 의미와 사회정치적 함의의 문제를 정리하였다. 《사시팔경도》에 재현된 공간은 산수자연이 가시화된 공간으로 사시의 변화에 따른 경물의 변화상을 담아내었다. 각 화면에 나타나는 경물들의 모습은 陰陽五行의 변화에 의한 천지 사물의 변화를 시각화한 양상이다. 또한 사시를 네 장면에 담은 사시도에서 팔경으로 나누어 재현한 사시팔경도로의 변화는 국가의 氣脈을 담아낸 현실경을 읊은 八景詩 및 이상경을 담은 瀟湘八景圖의 유행과 관련이 있는 현상으로 여겨진다.

사시팔경도에 재현된 여덟 장면을 살펴보면, 각 장면의 공간개념과 구성, 소재, 표현에 일정한 규칙성과 반복성이 나타나고 있다. 즉 이 작품에는 可變性和 恒常性, 易과 不易의 요소들이 교차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양면성은 사시도와 사시팔경도를 주문하고 감상하였던 계층인 왕실과 유학자 관료들이 지녔던 周易적인 자연관과 시대관, 이러한 원리를 토대로 형성된 정치적인 의식이 시각적으로 표상된 방식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조선 초의 실경산수화를 대표하고 있는 관료계회도는 왕조의 창업과 경영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유학자 관료들의 모임을 기록한 작품이다. 한강 동호의 제천정과 서호의 잠두봉은 조선 초 관료계회가 자주 있었던 대표적인 장소였다. 그리고 계회도에는 제천정과 잠두봉에서의 계회장면을 前景에 그리고, 中景과 遠景에는 그곳에서 보이는 경물을 담아내곤 하였다. 이 작품들의 공간개념과 구성에는 眺望과 風水라는 두 가지 개념이 적용되었다. 이러한 계회도들은 왕도정치가 이루어진 현실을 은유하는 아름다운 자연경을 바라다 보는 방식인 조망과 뛰어난 지역에서 인재가 나온다는 풍수의 개념이 시각화된 산물이었다. 太平盛代의 王恩을 칭송하는 관료들의 유학적 가치관과 정치관, 그러한 시대를 창출하는데 기여하였다는 관료로서의 자부심, 관료 간의 우의 등이 은유적으로 표상되었던 것이다.

조선 초 사시팔경도와 계회도는 왕도정치의 실현을 찬양하는 館閣藝術을 창조하였던 왕실과 관료들의 公利的 예술관을 배경으로 등장하였다. 이 시기에 제작된 모든 산수화를 동일한 성격과 기능을 가진 예술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 그 가운데 관각예술로서의 특징이 부각된 일군의 작품들이 존재하였다는 사실 또한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작품들은 개인적인 서정을 담아내기 보다는 공적인 의식과 시대관을 표상하고, 예술의 정치사회적 기능을 시각적으로 구현한 작품들이다. 이러한 회화 작품들은 사회적, 정치적 기능을 수행한 문학 및 음악과 함께 이 시기 왕실과 관료문인들의 유학적 사상과 정치적 의식을 담아낸 公의 예술로서 정립, 유행되었다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Abstract

Space Represented in Eight Views of the Four Seasons and Visualization of the Political Ideal of the Early Joseon Period

Park Eunsoon *

This article surveys the symbolic meaning and socio-political implications represented in the themes of Eight Views of the Four Seasons and Scholar Official's Gathering. In Eight Views of the Four Seasons, different images of the nature according to the change of the four seasons were depicted. The images of the landscape and other symbolic materials in the space between the sky and the earth reflect the change of *Eumyang* (*Yinyang in Chinese*), the fundamental law of nature. The change of landscape painting themes from, which represents the four seasons by four scenes, to Eight Views of the Four Seasons, depicting four seasons by eight scenes, is related to the popular format of poetry in the early Joseon period, which described the eight views of four seasons and Eight views of the Xiao and Xiang Rivers.

In Eight Views of the Four Seasons, we can find regularity and repeatability upon expression of space, composition, motives, and techniques. This means that the changeability and the homeostasis are coexisting in this type of paintings. The court and Confucian officials' ordered and collected these paintings, thus reflecting values they admire upon them. They had the Confucian view of nature and politics based on the thinking of *The I Ching* (The Book of Changes).

The paintings of scholar official's gathering represented real landscapes where the meetings were held. *Jecheonjeong* pavillion, located east of Hangang River and *Jamdubong* hill, located West of Hangang River are two famous places in which the gatherings of scholar officials were often held. In the paintings of these meetings, the scene of gathering was

* Professor, Duksung Women's University

depicted in the foreground while beautiful scenery was often represented in the middle and far grounds. In making the space and the composition, the viewpoint of *jomang* 眺望 and the concept of *pungsu* 風水 were inputted. The *jomang* was a popular way to observe and depict nature in this period and delivers the pride of the officials who joined the government to make their political idealism into reality. The *pungsu* (*fengshui* in Chinese) was the most popular concept of interpreting the topographic characteristic of specific places in the Joseon period. The paintings visualize ideal landscapes that imply the materialization of ideal political values of Confucianism.

The Eight Views of the Four Seasons and Scholar Official's Gathering in the early Joseon period became popular as an art that reflects idealistic Confucian values in visual format. It was mainly patronized by the court and officials to support Confucianism as a main ideology.